

런던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자료제공/영국대사관



런던 시민들은 매일 2억8천5백만 갤론(1300 메가리터)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 거대한 양의 수도물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하는 것은 일반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은 런던지역 상수도 사업본부인 『Thames Water』의 주업무로서 새로운 기술도입은 물론 환경보존에도 힘쓰고 있다.

『Thames Water』에서는 신기술을 도입, 『London Ring Main Project』를 추진중에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런던 밑을 관통하는 80Km(50마일)의 수도관으로 1995년에 완성되면 런던지역에 매일 2억8천5백만 갤론(1300 메가리터)의 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1887년에 시작된 『London Ring Mian Project』는 터널을 파는 속도에서 5일만에 501m를 완성하여 이미 세계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현재

공사기간을 1년정도 단축하고 있다. 2.5m 직경의 급수본관에는 12개의 샤프트를 특별하게 배치하여 사업본부에서 물을 지역배수시스템으로 직접 각 가정의 수도꼭지로 보낼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터널의 남쪽부분은 1억갤런(450 메가리터)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은 급수본관의 주요 추진력으로 중력을 이용하고 있어 에너지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12개의 샤프트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를 설치하여 완전 자동관리가 가능하고 모든 펌프용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광학섬유 케이블을 사용하여 급수관의 각 제어점과 연중 24시간동안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런던 남서부 햄프톤본부사이에 신속한 통신체계를 이루어 신속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